

## 당신의 미국 배당주, 어떤 ETF에 노후를 맡기시겠습니까?

### ✓ 투자자들이 연금 동반자로 손꼽는 미국 배당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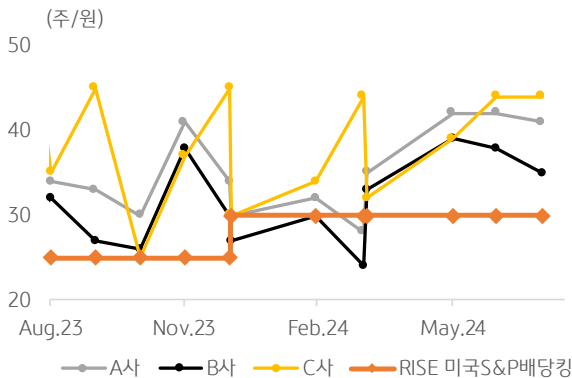
- 연금 투자 대상으로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. **성숙한 자본주의와 안정적인 배당 지급 구조가 자리잡은 미국 배당주에 투자**하는 ETF들이 2023년 이후 국내에 다수 상장.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확대 속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배당주를 연금 투자 핵심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
- 미국 배당주는 **배당의 삭감없이 연속 지급 및 인상 연수에 따라** 배당블루칩(5년 이상 270개사), 배당챔피언(10년 이상 153개사), 배당귀족(25년 이상 68개), 배당킹(50년 이상 53개사)으로 분류
  - ▶ **배당킹은 배당금을 5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급한 선별된 기업**

### ✓ 50년 이상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'검증된 배당킹'

- 현재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과거 위기 시기 배당을 중단/삭감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동일한 배당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배당 정책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
- 배당킹은 1970년대 석유파동, 1987년 블랙먼데이부터 2000년대 닷컴버블, 2008년 금융위기 등 미국 역사상 수많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확인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. **존속 기한이 50년이 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대부분** ▶ 연금 투자 대상으로 적합
- 커뮤니케이션, 테크, 에너지 기업과 같이 존속 기한이 짧거나 이익 변동성이 큰 기업들 대신 진입 장벽이 높은 유틸리티(주마다 다른 인프라 정책으로 민영 유틸리티 기업 존재)와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 필수소비재(ex. 코카콜라, P&G 등) 비중이 높아 **안정적인 주가 수익률과 배당 지급력 보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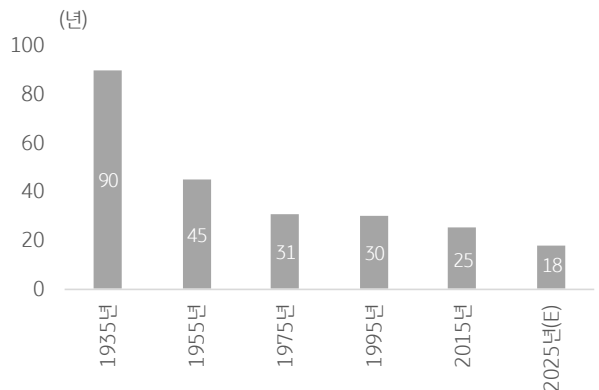
### ✓ 추천 ETF : 장기간, 안정적으로, 예상 가능한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는 RISE 미국S&P배당킹(460660)

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주 ETF의 분배금 추이



※ 출처: 각 사 공시 기준, 2024. 8. 8 기준, KB자산운용

S&P500 기업의 평균 수명



※ 출처: Mckinsey & Company(2020), KB자산운용

- ※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‘투자광고 2024\_974(다)’
- ※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,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·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※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